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1. 봄호 (제4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2001. 봄호 (제4호)

CONTENTS

CONTENTS

시론 /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 약사의 비애	3
신임임원프로필 / 대한약사회 회장 및 위원장 시도지부 회장, 서울시약사회	4 5
동문회소식 / 제32대 대한약사회장에 한석원 동문 당선 회장단 회의 약연상, 약사금장 등 시상식 약업신문사 동암상 수상	6 7 8 9
특별기고 / 은퇴, 그리고 깨달음의 즐거움	10
학술논단 / 물이야기	12
동기회동정 / 27회 은사의 밤	14
만평 / 그래서, 꽃은 피었는데...	15
지부별소식 / 서초지부	16
동기별소식 / 10회 동기회	17
별난동문이야기 / 평안한 죽음으로 이끄는 봉사, 호스피스	18
약국도움이야기 / 약사 직역확대의 요람 의약식품대학원	20
총동문회 및 학교소식	22
동문기금 · 장학금	23
회원동정	24



인쇄 : 2001년 4월 25일 | 발행 : 2001년 4월 30일 | 발행인 : 유영후 | 편집인 : 황공용 |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 전화 : 565-1700 | 팩스 : 564-1701 | E-mail : capa21@hananet.net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 전화 : (02)2263-1901(대) | 팩스 : (02) 2263-1905 | E-mail : YC1905@chollian.net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 약사의 비애



유정사
(10회, 부회장)

의약분업은 분명히 개혁적인 조치였다.

혼란과 갈등, 파행이 거듭되었고, 결국 3차례의 의료대란 끝에 시행된 의약분업의 6개월 중간평가는 '의료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났다.

이제 의약분업의 문제가 아닌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산토끼 잡으려 놓은 울무에 외양간 황소가 걸린 경우가 된 것이다.

우리 약사도 울가미에 걸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의료보험 재정파탄 보도경쟁에 약사들이 마치 의약분업의 큰 수혜자인 것처럼 편향되게 보도된 것이다.

지난해 약제비 청구실적의 통계수치를 들어 약국의 수입이 1,200배 늘었다는 식의 보도이다. 마진이 전혀없는 약제비가 전체 청구약제비 중 61.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환자와 고객의 눈 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억울하고 할말이 태산 같지만, 그저 모른체 해야할 판이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루 1천건 이상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건도 수용하지 못하는 약국이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의약분업 수용과 정착과정에서 온갖 희생과 좌절을 감수해온 우리로서는 주위의 약국이 폐업하고, 동료 약사의 전업이 줄을 잇는다는 사실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사실 의약분업이 의료보험재정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우리는 이미 예견했던 일 아닌가?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약분업 설계모형의 변질이 의료보험재정의 고갈로 결과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임의조제라고 의사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매도당했던 혼합 판매의 일종이다. 1만2천 질병군 중

80%가 자가진단, 자가처방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상식에 통한다. 매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은 약국에서 처리하도록 해야했고,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낱알 판매와 혼합판매의 허용이 그것이다.

둘째, 대체조제의 문제이다. 약품의 선정권을 의사에게 독점시키다보니 고가약의 처방이 늘어 약제비 급여율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왔다. 의약분업 중 40%대이던 고가약처방 비율이 60%대가 되었다. 그나마 약사법상 법적 기구인 지역분업협력위원회마저 없애고자 하고 있다.

셋째,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의 원인이다. 약의 전문가는 약사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우리 의약분업은 상표명 처방을 채택했다. 그 결과 고가약 처방에 의한 의료보험재정의 문제, 리베이트 관행의 존속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선진국에서도 뒤늦게 의료보험의 재정의 문제로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문제를 간과한 결과이다.

넷째, 전문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문제이다. 종전의 30:70으로 구분되었던 전문과 일반약의 비율이 현재는 60:40의 비율로 되어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반약의 분류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까지 전문약으로 분류하다보니 200원으로 약국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경질환까지 1만6천8백원의 보험재정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의료보험재정의 고갈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던가?

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 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분한 논의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피해자인 약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차등수가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 거론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 책임과 권한을 전제로 한 차등수가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 회장 및 위원장

profile

회장



한 석 원 (8회)
보성약국(서대문구)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울시 약사회장
약사공론 주간
서대문구 약사회장

부회장



이 규 진 (9회)
농수산약국(송파구)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송파구 약사회장
강동구 약사회장



문 재 빈 (13회)
새강남약국(관악구)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울시 약사회장
관악구 약사회장

위원장



권 혁 구 (9회)
약사윤리위원장
일산대학약국(일산)
영등포구 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장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김 종 렬 (14회)
총무위원장
신성심약국(관악구)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관악구 약사회장



박 석 동 (15회)
홍보위원장
보건약국(관악구)
대한약사회 총무위원
관악구 약사회장



정 명 진 (18회)
약국위원장
새명지약국(서대문구)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서대문구 약사회장

시도지부 회장

profile



최 병 호 (12회)
경기도 약사회장
나나약국
경기도 약사회장(24, 25대)
성남시 약사회장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운영위원



지 성 배 (14회)
강원도 약사회장
강원도 약사회 부회장



선우 영 환 (17회)
인천시 약사회장
희명약국
대한약사회 이사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유 태 일 (19회)
울산시 약사회장
미래팜유태일약국
울산시 중구 의회의원



김 현 태 (20회)
수원시 약사회장
그린팜약국
수원시 약사회 부회장



정 응 섭 (27회)
춘천시 약사회장
종로약국
강원도 약사회 부회장
강원도 약사회 총무위원장

서울시 약사회

profile



황 공 응 (11회)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아주약국(서초구)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서초구약사회장



김 경 오 (19회)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장
영림약국(동대문구)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장
동대문구약사회장



이 경 옥 (19회)
서울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대보프라자 약국
구로구 약사회 부의장
구로구 여약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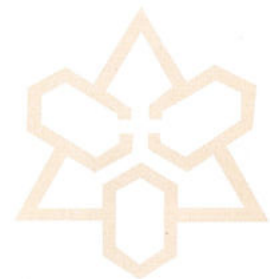
제32대 대한약사회장에 한석원 동문 당선

한석원 동문(8회, 약사공론 주간)가 제32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한석원 후보는 2월 28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펼쳐진 약사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총 284명의 대의원 중 115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했으나 102표로 2위를 차지한 박한일 후보가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1차 투표가 끝난 후 결선에 들어가기 직전 박한일 후보는 긴급 발언을 통해 “약사회 화합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한석원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두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약권회복을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장단회의



2001년 2차 회장단 회의개최

2001년 제2차 회장단 회의가 지난 3월 24일 동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회 한석원 동문의 대한약사회장 당선 보고 및 선거 대책 본부 해단식이 거행되어 선거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동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향후 동문회 차원의 협조방안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약연상, 약사금장 등 시상식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안건심의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은 약권신장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대한약사회장 표창, 약연상, 대한 약사금장이 차례로 수여됐다. 본회 동문들의 활약상이 돋보인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약연상 : 안인혁(6회)
- 약사금장 : 정재훤(4회), 조택상(12회)
- 대한약사회장 표창 : 강응모(18회), 이호선(20회)



약업신문 동암상 수상



약업신문사 제정 제39회 '동암 약의 상' 시상식이 3월 29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계, 학계, 의약단체, 업계, 개국약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본회 임성기 이사(6회)가 제약부분, 김기성 이사(3회)가 개국부분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 금메달 및 상금을 전달받았다. 동문회의 위상을 드높인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은퇴(Retirement), 그리고 깨달음의 즐거움



임 신 자(4회)
뉴욕 올바니에서

지난날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젊은 날이 지나고 내 앞에 은퇴라는 새로운 생의 한 단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섭섭하고 서글퍼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젊었을 때는 은퇴라는 생의 시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지내왔건만, 막상 이렇게 나에게 은퇴가 다가오고 보니 이런 저런 감상으로 하루를 지날 때가 많다.

내가 은퇴하기 전, 주위 많은 사람들과 우리 직원들은 나에게 은퇴하면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이냐고 묻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었다. “한국에서 15여년, 미국에 와서 26여년, 도합 41여년을 병원약국에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약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만 했으니, 이제는 꼭 쉬어야 되겠지.”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집안 정리며, 그동안 미루어 둔 일들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1개월에 40시간 정도 Part time으로 일하면서 한 주일에 3번씩 Health Club에 나가서 남편과 함께 건강관리를 하며 소일하고 있다.

일을 완전히 그만 둔 것도 아니니, 은퇴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

미일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은퇴는 나에게 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음을 느끼게 된다. 열정으로 가득찼던 청춘과, 일만 보며 달려온 장년이 지나고 이제 나는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낀다.

은퇴의 즐거움은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 보면서 느끼는 깨달음의 즐거움이다. 소용돌이치는 생활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던 젊은 날의 그때는, 하루하루 만나는 인생의 많은 수수께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여유도 없지 않았던가?

얼마전 입적한 성철스님은 현세의 생을 마감하며 여기 남아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세상 남녀에게 수많은 거짓을 행하였네.”

이제서야 나는 훌륭한 고승이셨던 그분의 말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음을 안다.

질풍노도와 같은 젊은 생의 한 가운데에서는 매일 매일 행하는 수많은 행위의 거짓을 깨우칠 수 없으리라. 젊은 그날, 가슴 사무치며 뼈 속까지 스며들던 그 환희, 쾌락, 분노 그리고 절망들이 모두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그 ‘거짓’이 아니었던가? 가슴 떨리며 날밤을 지새우던 젊은 날의 수많은 사연들이 이제는 새로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나는 애써 이들을 깨달음의 해답이라고 부르고 싶다.
 젊은 그날에는 보이지 않다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인생을 새로이 관조해 보는 요즈음에야 깨닫고 있으니,
 이것이 은퇴가 주는 깨달음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가올 때의 즐거움은
 청춘의 열락에 비할 바 아니다.



새로운 해답들이 보인다. 나는 애써 이들을 깨달음의 해답이라고 부르고 싶다. 젊은 그날에는 보이지 않다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인생을 새로이 관조해 보는 요즈음에야 깨닫고 있으니, 이것이 은퇴가 주는 깨달음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가올 때의 즐거움은 청춘의 열락에 비할 바 아니다.

은퇴를 하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는 보고싶은 얼굴들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고마움이다. 그 옛날 진달래 따먹고, 물장난 치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동무들과 학창시절 학교 앞 또는 뒤뜰에 앉아 미래의 꿈을 나누며 희망에 부풀던 그 다정했던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던 스승님과 선배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지내고 계실까? 내가 만약 옛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서로 만나 지난날의 추억에 잠겨 담소하며 지내고 있을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음을 느끼며 나는 항상 스승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제 4회 졸업 동문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쓰면 팔불출이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남편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

다. 내 나이 40살 되던 해, 미국 약사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할 적에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왕복 350마일을 약 1년 동안 운전해 주면서 편히 공부하도록 도와주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여 약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남편에게 내 최고의 감사함을 전한다.

또한 이제껏 아무런 사고 없이 약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스승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건강하게 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은퇴의 시기는 그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은 명백하니 모두들 항상 열심히 살며 공부하여 후일에 건전하고 훌륭한 약사로서 국민들의 보건과 위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헌신하며 국가관에 투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약사가 될 수 있는 많은 후배들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학술논단

우리 몸은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을 합쳐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순환대사를 말할 때 흔히 혈액순환만을 이야기 하지만, 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의 순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몸 속의 물을 이야기하자니 자연 신장(콩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붉은 콩 모양의 신장은 두 개를 합치면 반지와 같이 되고, 구부러진 쪽이 척추막 중에 있는데, 양쪽 신장의 二系가 서로 통하면서 하행한다. 위 쪽으로는 심장계와 서로 통하며 하나가 되니(水火既濟), 우물의 원천적인 물과 같은 신장의 精液이 파이프를 타고 올라와 모터 역할을 하는 심장을 돌려주는 것, 신장과 같은 심장은 서로 교제하여 생명을 연결시킨다.

동양의학적인 면에서 좌측 신장은 정액을 간직하는

라가 마치 수증기와 같은 맑고 깨끗한 기운이 되어 두뇌부를 움직이고 말을 하며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등등의 일을 하게 한다. 두뇌부가 움직이면 다시 그 기운은 하강하여 지구의 대류 현상과 같은 순환활동을 인체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신장은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따라서 신장의 질병은 쳐서 없애는 방법이 아닌 보하여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대의학에서도 신장에서 야기되는 질병들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라. 갱년기질병들을 포함해서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건선 등 면역학적으로 리듬이 깨져 버린 상황의 질병들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장기간 쓰다보면 신



문 옥 자
(8회, 이사)

물이야기

몸 속의 물을 지배하는 자는 건강하게 살고,
물을 지배하는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

장부로, 오장정기의 정액 낭비를 봉쇄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물을 아껴 인체의 각 장부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水原이 되는 것이다. 우측 신장은 命門이라고 하는데, 좌신과 서로 짝이 되어 무엇을 성립시키는 관이다. 좌신이 혈액을 정액화하여 運入하면 명문은 이를 저장하는데, 남자는 精을 저장하고 여자는 자궁에 연계되어 종족 보존의 근본이 된다. 천품으로 부여받고 태어난 이 기운이 왕성하면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뽐내 볼만도 하지만, 모자랄 때는 남성은 어깨가 처지고 자신감을 잃게되며, 여성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아름다움을 소실하게 된다.

신장의 원천적인 샘물은 도량과도 같아 흐름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소화기관의 소화액들로 화하여 후천적인 에너지원인 음식을 정액화하는 구실을 한다. 여기서 얻어진 정미로운 영양분은 더욱 상부로 올

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공로가 지대하기는 하지만 그 작용 중의 하나는 혈관 속의 물을 혈관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체가 불필요한 허혈로 인해 혈액 속의 물(혈장)이 말라 혼증되어 모자라는데, 스테로이드의 작용으로 물을 세포간질액 쪽으로 이동시킴은 혈관을 좁히고 약하게 하여 터지게 되면서 신장 내의 사구체는 망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부와 근육이 붓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갱년기 클리닉이라 하여 호르몬의 투여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가 각광받고 있으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잠복되어 있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수종 등의 종양이나 암과 같은 질병군에는 대단히 위험한 치료에 속한다.

또한 인체의 호르몬 분비는 뇌하수체의 호르몬의 자

극으로 분비되어야 마땅한데, 인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외부에서 투여되는 호르몬의 양을 인체가 거부하지 않을 조건으로 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인체에 일시적으로 충족되는 호르몬은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분비를 중단하게도 되는 것이다.

필자는 건선, 백반증, 알레르기성 피부병·전식·비염, 류마티스질환, 갱년기질환, 심장 및 간장질환, 감상선질환 등등의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를 한방요법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의 차이일 뿐 부작용은 커녕 완치되는 환자들을 보면서 나에게 약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치료의 근본은 신장의 정액이 충족되면 가능한 것인데, 나빠지기 시작한 장부에서 연계되는 쪽의 장

장에서 직접 교류도 있고, 간장에서의 혈액 공급도 있으니 허열이 생길 일이 없어 편안하니 잠을 잘 자게 되고 심장의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두뇌는 맑아지는 것이다.

또한 腎虛腰痛이라 하여 요통을 다스림은 신장의 기운을 복돋워주면 되는 것으로 스테로이드제 필요 없이도 치료 가능하다. 디스크라는 병, 신장의 정액은 모자라서 골속의 수액이 건조해지고 위축이 되며, 스트레스는 비위를 긴장하게 하고, 과로는 간장을 피곤하게 하여 뼈를 지지해주는 근육과 인대가 위축이 되어 오그라들면 탄력이 없게 된다. 또한 발과 다리 부분이 약하게 되면 찬 기운에 저항을 받아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오금지를 거쳐 척추 양 옆을 지나는 부위들의 근육들은 단단하게 뭉치면서 유연성을 잃게 된다. 이때 무리한 운동이나



“ 신장은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따라서 신장의 질병은 쳐서 없애는 방법이 아닌 보하여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로 하여 결국에는 신장의 힘이 약화되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커다란 고민거리인 정신과질환은 또 어떤가. 등잔불의 불꽃이 맑고 깨끗하려면 심지가 깨끗하고 기름이 충분하며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 기름은 신장의 정액에 비유되는데, 원료가 모자라면 우리 몸에 여유가 없어지니 남 앞에 담대히 나서기가 싫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심장에 허열이 뜨면 불면으로 이어지고, 그을음은 두통, 어지러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두려움은 공황장애로 이어져 정신과약을 필요하게 만든다. 이 또한 한방으로 훌륭히 치료가 가능하다.

신장의 정액을 만들어주고 간장으로 흐르게 하며 잘 못되어 약화된 혈관들을 튼튼하게 하면서 겁먹고 두려운 생각이 없어지고 담대하고 용기가 생긴다. 심장은 신

빠듯하게 되면 근육은 비틀리게 되면서 뼈를 압박하게 되고 뼈의 위치를 변형시켜 신경이 눌리게 된다.

운동을 하려면 허리가 빠근하여 부담이 오는 것도 위의 상황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신장의 수액을 만들어 골속에 공급하게 하고,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법에 한약이 있다. 한약은 일종의 좋은 식품이다. 잘 선별하여 올바르게 다스리면 해로울 리 없지 않은가.

스테로이드나 정신과약물의 부작용에 비한다면 참으로 좋은 약이면서 훌륭한 메뉴의 식단이라 여겨진다.

우리 몸 속의 물(津液)이 흐름의 방해로 인하여 정체되고 엉키고 메말라서 여러 형태의 질병을 일으킴을 알아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무릇 건강하게 살 것이다.

서로 서로 심신이 건강하면 남에 대하여 너그러워질 것은 당연한 일, 아름다운 이웃,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79 학번 입학 20주년 '은사의 날' 기념행사

이창오 (27회, 동기회장)



2~3년 전부터 가까이 있는 선배들이 약대 입학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준비를 한다며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하던 모습이 약간은 낯설었는데, 전혀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일이 우리의 현실로 닥쳐오다니!

우리네 약국의 속성이라는 것이 거의 예외 없이 지역 밀착형이 보니 자연 회무는 물론 경조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동기들 모임이라고 해야 거의 몇 명 단위의 학창 시절 친분이 강했던 동기들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별히 권력욕이 있거나 정치관에 나설 일이라곤 없는 약국의 입장에서 동기회 전체 모임을 주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선배들의 말이 이제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고나 할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난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은사님들, 동문회 임원 여러분들과 동기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다. ”

그러나 이제 각자가 처한 개국가에서 어느듯 중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입장에서 늘상 선배들 심부름이나 하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듯이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런 모임을 갖게되는 시기와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월 17일 저녁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입학 20주년 기념 모교 은사의 밤 행사를 조촐하게 거행했다. 이제는 후배들을 배려해야 하는 나이도 되었고, 의약분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몸소 겪었을 동기들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 작은 격려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준비위원들의 바람이 통했던 것일까.

그야말로 머리가 희끗희끗해 지신 몇몇 은사님들이 이미 정년퇴임을 하셨다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지만, 선약이 있으신 한두 분들을 빼고 17분의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유영후 동문회장님을 비롯, 총무님과 여약사동문회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 격려차 참석해 주셔서 새삼 동문의 정을 느끼게 해 주셨다.

대부분이 지역 약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생활에 충실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멀리 부산과 강릉에서 그야말로 성의를 가지고 참석해 준 남성진, 최종대 동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최종대 동기는 악업계와 상관없이 없는 광산업을 주종으로 하는 태광산업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레미콘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강원도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인으로 성장했다니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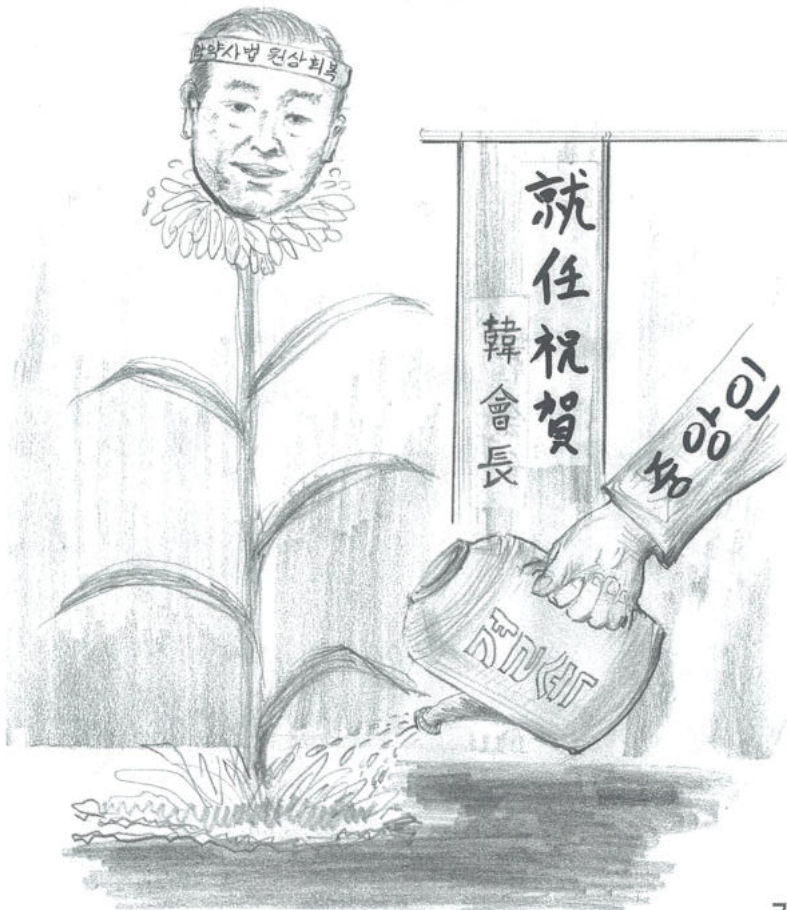
공직에는 보건복지부에 정명훈, 김명정 동기가 있고 미국으로 이민 간 김계환, 최철호 동기의 근황도 무척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것은 벌써 유명을 달리한 동기가 둘이나 되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 오인세, 배춘식 동기의 명복을 삼가 빌어마지 않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난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은사님들, 동문회 임원 여러분들과 동기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은사님들의 건강과 모교의 발전, 그리고 동문회의 번영과 동기 여러분의 밝은 재회를 기원한다.

마며
N O



그래서 꽃은
피었는네...

김기명 (18회, 극동약국)

서초구에 活力을 주는 서초동문회



안민철
(15회, 서초지부장)

앞으로 중앙인의
금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회에도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집합니다.

서초구 동문회는 1988년 강남구에
서 분구되면서 이능세(7회)선배가
초대 동문회장을 맡고 고문에 권중욱
(5회)선배를 모시고 출범했다. 개국
회원 30여명으로 출발한 서초동문회
는 최창엽 동문(13회)를 초대 서초구
약사회장에 당선시키면서 활발한 활
동에 들어갔다.

이어서 이승규(9회), 황공용(11회),
현병호(12회) 순으로 동문회장을 맡으
면서 서초구 동문회는 1회 이동화 선
배로부터 32회 송옥희 동문에 이르기
까지 38명의 개국 동문들이 한 형제로
서 우의를 다졌다.

척사대회, 동문등산, 바둑대회 참여
등 서초구 동문회가 활발하게 오늘까
지 이뤄지게 된데에는 동문 회원들의
열성에 힘입은 바 되었는데, 이로 인

한 결실이 약사회에 반영되어 황공용
(11회) 선배가 서초구 4대 약사회장을
역임하여 동문회에 活力을 넣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5대 서초구 약
사회장에 김기명 후배(18회)가 당선되
어 서초구 내에서는 중앙약대 동문회
가 그 어느곳 보다도 活力이 넘치는
동문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초구 동문회는 앞으로 중앙인의
금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회에도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다집합니다.

서초구 동문회 임원

- 회장 : 안민철(15회)
- 부회장 : 이경숙(15회), 김기명(18회)
- 총무 : 이규삼(24회)
- 고문 : 하연석(4회), 이경욱(4회)



어떤 입학 40년을 맞으니...



박 호 일
(10회, 동기회장)

우리 10회 동기회는

1962년 대입자격 국가고시가 실시되던 첫 해이어서 그런지 거의 입학정원에 해당하는 90여명만이 조출하게 흑석동 Campus에 들어 왔다.

66년 졸업하기까지 학생시절에는 변도문 동기가 학생회장을 맡아 수고했고, 졸업 이후에는 각 분야에서 서서히 동기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약사회에서 봉사한 동문으로는 주정덕(도봉구 약사회장), 박상길(수원시 약사회장) 동기와 작고한 김성환(은평구 약사회장) 동기와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한 김정봉 동기가 있으며, 정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주광역시 시의원으로서 재선의 김명민과 충남 금산군의 이흥만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제약업계로는 필자를 위시해서 많은 동기들이 아직도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장영조 동기가 한독약품 상무를 거쳐 주릭 대표약사로 있으며, 화이자 부사장과 파마시아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흥수 동기, 일동제약 상무를 거쳐 메디칼 트리분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택승 동기, 쉐링푸라우 대표를 역임한 정수길 동기, 일동 후디스 대표로 있는 이종석 동기, 오랜 국립보건원 연구직을 거쳐 한국 오가는 전무이사로 있는 심수일 동기 등이 제약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병원 약국계에는 건국대 민중병원 약국장으로 재직하며 병원 약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운 동기와 수병원 약제과장으로 있는 조정자 동기가 있다.

우리 동기 중 유일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강동구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하고 있는 오창학 동기가 특이한 경우라면 인공신장투석액을 취급하고 있는 (주)박스터 대표 최영일 동기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자운기계 부사장으로 있는 안영태 동기들이 있다.

우리 10회 동기회는 졸업이후 20여년을 유정사 동기가 회장으로 수고했으며, 현재 총무로는 김창수 동기가 수고하고 있고, 동문회 지부장으로서는 김삼균(강동구), 김정남(서대문), 서정목(성남) 동기들이 활동하고 있다.

졸업 35주년을 맞으면서 동기들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한다.



평안한 죽음으로 이끄는 봉사, 호스피스



원 주 희

(19회, 샘물호스피스 회장)

중대 약대를 1975년도에 졸업하고 육군 R.O.T.C(13기) 의정장교로 임관하여 배치된 곳이 관문점 근처의 한 부대였습니다. 보직은 대대급 의무실 지대장,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 초년병이 의사가 맡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몸이 저절로 움추러집니다. 그렇게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죽음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사고로, 병으로 제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저는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눈을 보면서 약사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 말년에는 사고로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숨 쉴 때마다 아프다는 통증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군대에서의 이런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평안한 죽음을 돕는 봉사, 호스피스'에 뛰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 후에 약 10년 동안 약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약국 경영도 수년간 해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살 늦은 나이에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83년부터 10년간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후 1993년 6월부터 샘물호스피스선교회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독립형태의 호스피스 시설, '샘물의 집'을 세우고 말기 암 등의 시한부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봉사약국인 '샘물약국'을 1999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계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사이



의학적 치료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살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예측되어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섬김을 받습니다.

기 때문에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액 무료로 말기환자들을 섬기고 있고, 지금까지 약 800여명의 죽음을 도왔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은 중세기에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편히 쉬고 갔던 숙박소에서 유래된 것인데, 여기서 아픈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관심을 베풀어 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스피스(Hospice)라는 말은 라틴어 Hospes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고, 이 말에는 접대하는 사람(Host)과 손님(Guest)의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기 암이나 말기 에이즈 같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준다는(care)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살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예측되어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섬김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주며 환자가 위엄을 유지하면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며, 죽기 전까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환자의 가족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호스피스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몇몇 선후배 동문들께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물질로, 기도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대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사 직역확대의 요람

의약식품대학원



김 창 종
(11회, 모교 의약식품대학원장)

모교 의약식품대학원(www.fda.cau.ac.kr)은 지난 1995년 급진적으로 발전되는 과학기술의 이론을 이용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인류의 삶의 질적 향상과 건강을 유지,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품 및 제품개발의 제반 관리기법을 습득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초대 원장 김창종 박사).

즉,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관리, 이용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행정가를 양성하는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원래 명칭은 의약식품관리대학원으로 식품생산관리, 식품안전성관리, 약무행정, 생산약학, 병원약학, 위생약학, 사회약학의 7개 전공으로 인가받아 1995년 3월 6개전공 39명의 신입생으로 개원하였다.

1996년 제 2대 원장으로 허인회 박사께서 취임하였으며, 이해 말 의약식품관리대학원을 지금의 의약

식품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약학과 생산약학을 산업약학 전공으로 통합하였다. 1997년 8월에 제 1기 15명이 졸업하였다.

이후 1998년 제 3대 원장으로 염정록 박사께서 취임하였으며, 1999년 8월까지 총 5기에 걸쳐 5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0년 제 4대 원장으로 본인이 다시 취임하였으며, 2001년 2월까지 8기에 걸쳐 총 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사회 각계 보건의료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춰 사회약학과 약무행정을 사회행정약학으로, 병원약학을 병원임상약학으로, 그리고 산업약학을 산업약학과 향장품학으로 통합 또는 분리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이번에 34명의 신입생을 출발한 향장품학(Cosmeticology)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생산고와 맞먹는 화장품 분야로의 직역확대가 절실한 의약분업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조치로 관련 분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적으로 피부미용 및 향장품 관련 전문대학이 6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를 약대에서 적극 수용하여 향장품학과 또는 향장미용대학원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지론이다.

현재 본 대학원에는 사회행정약학 23명, 병원임상약학 22명, 산업약학 12명, 향장품학 34명, 그리고 식품안전성관리 38명 등 총 1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특히 사회행정약학 전공에는 한석원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하여 문재빈, 박석동, 김경호, 문희 약사 등 약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대거 수학하고 있으며, 향장품학에는 권태정 서울시약 부회장을 위시하여 김경원, 정혜은, 이윤아, 소현진 약사 및 전문대학 강사 등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향장품학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생산고와 맞먹는
· 화장품 분야로의 직역확대가 절실한 의약분업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조치로
관련 분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졸업생들의 면면도 화려하여 황교선(고양시장), 주광수(식품의약품안전청), 김성진(식품의약품안전청), 김권수(식품의약품안전청), 이명재(구의회의원), 류덕희(경동제약사장), 김재수(대성약품대표), 신은록(영동약품대표), 박종전(대웅제약) 동문들이 있으며, 병원 약제부에는 이상주(성바오로병원), 권인숙(강남병원), 이광섭(적십자병원), 김영남(중앙대부속병원), 류순호(서울대병원), 이광자(서울대병원) 동문이, 그리고 개국약사로는 황문상, 조중형, 함한성, 김태두, 남

수자, 강희운, 하성주, 이진희 등의 약학석사를 배출한바 있다.

의약식품 세미나 및 학술행사도 다양하게 개최되어 이 분야의 주된 관심사 및 최근 정보 교류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식품위생관리제도 개선대책을 필두로 21세기의 보건복지와 약사정책 심포지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신설 배경과 의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21세기 국민보건과 복지정책, 암 노화 장수·약식지원,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 급변하는 의약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국민건강 증

진을 위한 식의약품, 21세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방향, 그리고 21세기 변화와 혁신전략에 이르기까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11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약사들의 전문직능 확보 및 직역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지금, 의약식품대학원의 문호는 우리 모든 약사들에게 활짝 개방되어 있다.

문의
전화 : 820-5590
팩스 : 823-5239
E-mail : kwakdp@cau.ac.kr,



2000학년도 학위 수여식

지난 2월 23일 오전 11시 모교 대학극장에서 2000학년도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학위 수여자 중 학사학위 4,758명, 석사학위 1,465명, 박사학위 165명 등 총 6,388명이 배출되었다.



제11회 박명수 총장 취임

지난 2월 29일 오후2시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제10대 이종훈 총장 이임식 및 제11대 박명수 총장 취임식이 유인촌(연극학과 교수) 동문의 사회로 1천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신임 박명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발전을 통한 새로운 중앙의 창조를 사명으로 하겠다"며 "연구 교육기능의 활성화, 참여행정·투명행정의 구현,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확보, MC건립문제 해결, 단과대학 특성화와 단과대학 중심 행정 체제 구축" 등을 다짐했다.



200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모교 대운동장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박명수 총장의 식사, 김희수 이사장의 치사, 배용수 총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박명수 총장이 전체 수석을 차지한 의과대 의학부의 신정호군의 신입생 선서와 장학생 표창, 교가제창 순으로 거행되었다.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2001. 4. 18. 현재)

회장단 회비 (24만원)

합계 : 1,720,000원

김승태 (15회), 김중환(17회),
정명진 (18회), 박계환(18회),
김경오 (19회), 이경옥 (19회),
김현태 (20회), 김영식 (23회)

이사 회비 (12만원)

합계 : 480,000원

박노일 (4회), 김경희 (6회),
임종흥 (7회), 이양원 (10회)

동문기금

입학 20주년 27회(이창오) 2백만원

광고비

건일제약 100만원

일반 회비 (2만원)

합계 : 1,358,560원

1회 (김기운 20불)
2회 (장 주 20불)
3회 구웅서
4회 장 강, 정인천, (임신자 200불)
7회 유상근,
(박노익 200불, 이준중 100불,
임종철 50불, 최종범 100불)
8회 유병호, 이태화, (오정웅 3만원)
9회 김학진, (서황석 20불)
10회 박광일
13회 박현숙, 윤창현, 안상희, 김신미

14회 김영남
19회 김동희
20회 송창수
26회 박재길, 양승훈
32회 김도형
기수모름 전두환, (이원영 20불)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 원
- 이 사 : 120,000 원
- 일반회원 : 20,000 원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중앙동문회
994-04-008036

약학대학 동문회 2001년 1학기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성별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성별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2	조유미	3.84	여	영등포동문회 (1,310,000)	655,000	2	김경태	3.34	남
	700,000	2	배태량	3.73	남		655,000	3	채희찬	3.57	남
	700,000	2	정남진	3.60	여	부 산 동 문 회	500,000	3	김영준	3.32	여
	700,000	3	이주연	3.64	여						
	700,000	3	원정은	3.60	여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2	임주원	3.76	여
	700,000	3	이윤기	3.57	남						
	700,000	4	조현주	4.05	여	한미약품(주) (2,620,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700,000	4	최소연	3.86	여						
	700,000	4	김윤경	3.85	여	합 계 ; 12,430,000					
	700,000	4	지정숙	3.78	여						

서병세 박사 [HIV치료법] 특강 및 회갑연

미국 Temple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감염질환 교수이신 서병세 박사(약대 6회)가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4월 11-14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감염질환학회의 초청으로 『AIDS치료법』에 관하여 특강연자로 초청받아 귀국한다. 이 때를 맞추어 모교 병태생리학 교실(주임교수 김창종) 주최로 9일 17시에 [항생제내성]에 관하여 특강하며, 나아가 4월 10일 오후 7시에 유명 후 동문회장, 가족과 친지 등을 모시고 여영(한미타워지하)에서 회갑연을 개최한다.



김명섭 의원 마퇴본부 이사장 취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김명섭 동문(5회, 이사)이 선임되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3월 30일 2001년도 제 1차 이사회에서 민관식 전 이사장 후임에 김명섭 의원(국회 정보통신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을 새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선출, 4월 20일 팔래스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약사회장, 의협회장, 식약청장 등과 제약사 최고 경영자, 국정원 및 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임무호 동문 - 등록금 한번 더내기 운동 첫발

모교 의약식품대학원(원장 김창종)이 추진하고 있는 21C 약학발전을 위한 『등록금 한번 더 내기운동』에 임무호 동문(24회, 안동시 고려약국)이 일착으로 동참하였다. 임동문은 '99년도에 사회행정약학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복지법인을 새로 인가받음으로써 복지전공 대학원으로 진학하면서 등록금전액을 대학원에 기증하였다.

이희민 박사 모교에 실험기구 기증

미국 FDA에 근무하고 있는 이희민 박사(7회)는 heatless lamp를 모교(병태생리학 교실)에 기증하였고 앞으로 생리기록장치 부속품들도 기증할 예정이다. 이박사는 모교에 대한 애착이 지극하여 귀국할 때 마다 모교에서 특별강연을 자주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 보건의 날 기념 267명 정부포상

김구 동문 등 약업인 5인 수상 영예

복지부는 4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보건의료관계자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267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상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에 김구 전 대약부회장이 수상하였다. 김구 동문(12회, 약사공론 부주간)은 27년간 대한약사회 각급회 임원으로 봉직하면서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마약 퇴치운동 강

사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는 등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약분업에 대비, 복약지도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표창에 안인혁(6회) 전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이 수상하였는데, 안인혁 동문은 30여년간 대한약사회 각급회에 재직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활동, 무료봉사약국 운영, 심장병어린이 돕기, 의약분업의 정착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 및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인사

- 박호일(10회, 부회장) 1월 1일 환인제약 부회장 취임
- 한석원(8회) 2월 28일 제47회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대한약사회장 당선
- 강승안(7회, 이사) 2월 28일 유유산업 사장 취임
- 정도연(14회) 3월 6일 일양약품 회장 취임
- 김명섭(5회) 3월 30일 마퇴본부 이사장 취임

결혼

- 박기하(4회) 자녀, 3월 8일 국제전자센타 문화관에서 결혼
- 유정사(10회, 부회장) 자녀, 3월 11일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결혼
- 허인회(4회) 자녀, 3월 17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결혼
- 서명규(7회, 이사) 자녀, 3월 24일 세종호텔에서 결혼
- 임종홍(7회, 이사) 자녀, 4월 1일 영등포 목화웨딩홀에서 결혼
- 정훈교(5회, 이사) 자녀, 4월 8일 역삼역 LG타워에서 결혼
- 박호일(10회) 자녀, 4월 21일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결혼

부음

- 도상학(2회, 동덕약대 교수) 1월 24일 별세
- 임완호(6회, 고문) 2월 10일 모친상
- 권혁구(9회, 부회장) 2월 16일 장모상
- 지태현(20회, 한국세로노(주) 지사장) 2월 21일 부친상
- 지선훈(2회, 이사) 2월 25일 모친상
- 문재빈(13회, 이사) 3월 10일 장모상
- 장 레(1회, 고문) 4월 12일 부군상

영등포지부 “보름회”

매월 보름날 모임을 가지며 선·후배간 식사모임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2001-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인천광역시 지부

각 지역(6구)마다 담당 부회장, 간사 등을 뽑아 운영하며 2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2001년 21세기
시작이 생각보다 힘겹게 시작됐다.
20세기 藥師天國에서 21세기 藥師의 나라는 고난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의약분업의 파고 속에서 寧日이 없는 藥師 그러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
동문회보가 이제 4호를 출범시킨다.
만드는데 흘린 땀만큼 우리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보가 되었으면 더 무슨 바람이 있을까?



徐

봄이 실종된 시절이라고 하지만 동문회지는 봄호의 바다를 순
향하고 있다. 멀리 뉴욕에서 동문회를 향한 애정이 담긴 성금
과 글을 보내주신 선배님의 관심이 동문회보에 대한 봄소식이
아니고 무엇이라. 사람의 일이 무릇 계절의 흐름에 끌려갈 수
만은 없는 일. 주변의 환경이나 시류를 탓하기 전에 내 무게중
심부터 바로 세울 일이다. 春來不以春이라던가. 그러나 봄은
봄이다.

明

다행히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염색체의 이상으로 심장이나
뇌에 이상이 생긴 결함이 있는 아기는 자연유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식은 땀이 흐르고 어
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나마 하루에 3개피 피우던 내
철학의 담배를 끊어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 내 청춘 돌리도...

庸

흔히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은
과정보다 결과에 치우치는 역학관계를 굳이 무시하려 하지 않
는다. 그것이 크던 작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경우
미안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자체에 최대의 혐의를 두어야 한
다. 그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감정의 개입에 따른 잘잘못을 가
리는 것은 본말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말
았어야 할 일이면 그 자체에 대한 잘못의 인정이 해결의 출발
점이다.

洙

계절이 건너뛰어 벌써 한 여름을 느낄 정도로 무덥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개혁 없이 불쌍한 민초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정책에 또 얼마를 가슴 졸여 기다려야하나 하는 조바심
에 하루가 가는 것 같다. 정책입안자들이여! 제발 숨 좀 쉬고
삼시다. 편집위원 선배님들께 미안한 마음과 답답함으로 이
글을 쓰면서...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
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Bioflor is resistant to the vast majority of commonly used antibiotics"

<Boddy AV Pharmaceutical Research 1991; 8: 796-800>

비오플의 특징점

항생제에 사멸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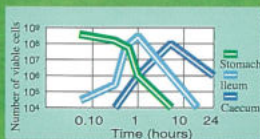
진균류인 사카로마이세스 보우라디는 유산균제와는 달리 화학요법제와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으므로 항생제와 병용투여가 가능합니다.

	S. boulardii	Lactophlin (Vivagi)	Enterococcus faecium	Streptococcus
Doxycycline	R	S	S	S
Amoxicillin	R	S	S	S
Ceftriaxone	R	R	S	S
Norfloxacin	R	S	R	S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R	R	R	S

- S : sensitive - R : resistant Der Informierte Arzt 1992; 13

위산, 담즙에 안정합니다.

비오플은 위산과 장액에 안정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결장에 도달합니다. 또한 위산에 안정하므로 유산균에서 사용되는 장용피동 특수처리기가 필요 없습니다.



Vie Med. 1997.

효모균 정장제

비오플[®] 250 산 캡셀

(Saccharomyces boulardii) *

* 원 개발사인 프랑스 비오프코덱스의 Original 원료 규격 명칭임



기술제휴 및 원료공급원
Laboratoires BIOCODEX
FRANCE

CUHNIL 건일제약 (주)
http://www.kuhnil.com



중앙대학교교육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